

2024년도 제6호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베들레헴의 주님 탄생 동굴: 구세주가 태어나신 장소

대림 성탄
특집호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전화 02-796-6440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트란세아무스 우스퀘 베들레헴!(Transeamus usque Bethlehem!)” -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자!” 대림과 성탄 시기를 맞이하여, 옛 성탄 성가에 나오는 목동들의 초대(루카 2,15 참조)를 여러분에게도 전하고자 합니다. 대림시기는 성탄절에 열리는 희망의 문과 같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천상 본향과도 같습니다.

요즘 많은 일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다 보니, 이 시기가 제게는 특별한 선물로 여겨집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각한 학살과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현지 직원들을 위해 피정을 지도했던 레바논에서는 대규모 보복 공격으로 엄청난 고통과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날마다 많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제 다시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합니다.

이런 갈등들은 지역을 넘어 확대되면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 지역사회, 직장에서도 작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런 갈등들은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너무 무겁고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란세아무스 우스퀘 베들레헴!”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품은 채,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사람이 되신 주님께 갑시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은 분(마태 28,18 참조)”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구유에 가는

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황폐해진 피조물도 틀림없이 완성으로 이끄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구원이 필요한 온 세상을 구세주이신 그분에게 의탁합니다. “트란세아무스 우스퀘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목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말할 수 없이 숭고하고, 거룩하고, 영원하고 전능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유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기는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가 잡아주기를,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아기에게는 어떤 의도나 조건이 없으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하느님이신 구유의 아기는 그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트란세아무스 우스퀘 베들레헴!” 그러므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마음을 모으고 서로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여러분 모두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과 생생하면서도 구원의 기쁜 만남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ACN 지도신부 안톤 레서

P. Anton Leese OP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성탄 구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 구유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가장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 탄생 장면을 재현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은 13세기 초, 예루살렘 성지방문에서 영감을 받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탄 구유는 베들레헴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들은 올리브 나무로 구유를 조각하고, 목주와 성물들을 만들어 생계를 해결하지요. 몇 년 전, 이곳을 방문했을 때 성탄 구유를 사면서 이 일에 종사하는 몇몇 가정들을 만났습니다. 지금쯤

몇 명이나 여전히 베들레헴에 남아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찾아 주님이 태어나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두 전쟁 세력 사이에 갇힌 채, 끝나지 않는 갈등 속에서 때로는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대림과 성탄 시기에 구유 앞에서 기도할 때, 박해받고 고통받는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성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들과 ACN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ACN 수석대표 레지나 린치

Regina Ly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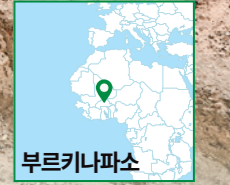
“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이 필요한 온 세상을 구세주이신 그분께 의탁합니다. ”



고통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

성탄 선물

생명을 살리는 선물



외경인 ‘야고보 원복음서’를 보면 이집트로 피신하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이 사막에서 갈증을 이기지 못하여 지치자, 대추야자 나무들이 그 열매로 이들의 원기를 북돋아 주려고 가지를 숙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인한 박해자들로부터 피신하는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만 해도 지하디스트의 테러를 피해 탈출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에 이릅니다. 수천 명의 그리스도교 가정들은 옷가지만 걸친 채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굶주림, 갈증, 피로에 시달리면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다음날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한 처지입니다.

아우구스티나는 자녀들이 내내 울면서 지낸다고 전합니다. 난민들은 더 안전한 지역의 본당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현지 공동체의 교회가 이런 난민 유입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수천 그루의 대추야자 나무가 가지를 숙여야 할 텐데, 과연 21세기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모님, 요셉, 아기 예수님처럼 집을 떠나 피신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추야자 나무처럼 마음을 기울여, 연민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올해 성탄절에 여러분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을 위한 ‘대추야자의 기적’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1 1달 학비 2만원
부르키나파소 학비와 교과서 지원
- 2 3달 영양식 10만원
부르키나파소 영유아 영양식 지원
- 3 4달 식료품 23만원
부르키나파소 식료품 지원

페루 교회에 착한 목자를!



페루에는 사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대도시는 물론, 아azon 지역의 열대 우림과 안데스산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가 부족한 곳에서는 사이비 종파가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ACN은 페루에서 미래의 사제를 양성하는 일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페루에서 신학교 25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20년째 후원하고 있는 푸노교구의 신학교에서 올해 세 젊은이가 부제 서품을 받았으며, 사제 서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현재 교육 중인 젊은이는 10명에 이릅니다. 사제로서 이들의 직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푸노는 안

데스 산맥의 해발 3,800m의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기후는 혹독하며, 평균 기온은 10도 미만입니다. 참으로 따뜻한 날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더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이곳 사람들을 위해 착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32,800원으로 신학생 한 명에게 한 달 학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착한 목자’를 페루 교회에 선물하시겠습니까?

- 4 1달 학비 132,800원
페루 착한 목자, 신학생 학비 지원



부제 서품을 받는 세 명의 페루 청년들



1 성극으로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아이들
2 어린이들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몇 달간 준비한 현지 재단사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

“아기 예수님,
사랑합니다!”

- 1 절망에 빠진 이를 위로하는 파우스티나 수녀
- 2 어린이들과 함께 바치는 평화를 위한 기도
- 3 실질적 희망의 표시, 생필품

성탄 선물 온기와 희망을 주는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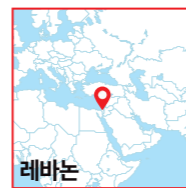
4세기에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성인은 구세주의 탄생에 깊이 감동하여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신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목수, 구유, 포대기에 싸인 아기, 그리고 필요한 걸 전혀 갖추지 못한 한 처녀의 출산에 관한 이 이야기는 가난이라는 짐과 온갖 곤궁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요람도, 담요도 없이 딱딱한 구유에 누워 있을 만큼 가난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를 통해 아기 예수님은 오늘날 중동 지역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의 가난을 이미 함께 나누셨습니다.



시리아의 겨울은 몹시 춥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바지나 스웨터조차 많은 이들이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이 빠르다 보니 옷은 작아지기 일췌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들은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들은 자신의 수입이 부족해서 가족의 기본 생계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게다가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류비는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수입보다 더 높아서, 옷을 산다는 건 꿈도 못 꿀 지경이지요.

올해에도 예수 마리아 수도회의 애니 데메르지안 수녀는 시리아 곳곳의 어린이들 25,000명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청바지 및 후드티와 잊지 못할 작은 성탄 파티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전쟁이 14년째 지속되다 보니, 그

리스도 탄생의 대축제를 진정으로 평화롭게 경험해 본 아이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은 아이들의 눈에 기쁨을 선사하고, 부모님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레바논의 궁핍한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의 확산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중산층이었던 가정마저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떠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꿈에 불과할 뿐이지요.

이곳에서도 아동복은 대다수 부모에게 감당하기 힘든 품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요셉 수녀회에서는 여러 지역의 어린이 11,000명에게 꼭 필요한 의류를 성탄 축하 행사에서 전달해 주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부모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물어보았습니다. 레이먼다 사아데 수녀가 보내온 글입니다.

“이런 활동은 어린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활동의 모든 순간은 성탄의 정신으로 가득 차며,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빛나는 희망과 빛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5 1명당 24,000원
시리아와 레바논
어린이 성탄
선물(옷)

이제 우크라이나 신자들은 전쟁 중에 세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실까요?”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전국의 여성 수도자들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합니다.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본 남부의 오데사-심페로폴교구도 수도자들이 돌보는 곳입니다. 이들은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르노모르스크의 성 엘리사벳 수녀회 소속 조나스자 수녀는 최근 폭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폭발은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아주 강력했고, 저는 겁에 질려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런 공격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영혼에는 고통스러운 흔적이 남지만,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선물을 한없이 소중히 여기면서, 매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궁핍함 가운데서도 여성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찌할 바를 모르 때, 갑자기 식료품 기부가 들어오는 식이지요. 미콜라이프의 포교 성 베네딕도회 여성 수도자들은 이런 식으로 마을 전체에 생필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도회의 파우스티나 총원장 수녀가 말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우리 교회와 소명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저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배고픈 군중에게 빵을 나누는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장면을 목격하던 사도들과 비슷합니다.”

큰 항구도시인 오데사의 수많은 노숙자 중에 특별히 묘지, 쓰레기장 부근, 심지어 하수구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는 자비의 수녀회도 놀라운 하느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현존과 우리의 실질적 도움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되어야 할 심각한 부상의 치유를 목격했어요. 병원에서는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으며, 사실 심각한 상처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치유되기는 힘들지요. 이런 노숙자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는 것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 여성 수도자들은 전쟁으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수도자들은 이번 성탄절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외로운 이들, 난민들과 함께 새로 태어나신 평화의 왕자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평화의 선물을 가져다주시리라고 그들과 함께 희망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여성 수도자들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일 년 내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ACN은 이 여성 수도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성 수도자 한 명당 매달 120,000원을 지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빛과 희망을 선사하는 데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6 1달 생활비 12만원
우크라이나
여성 수도자
생계 지원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에워싼 방패이십니다.(시편 3:2,4)”

부르키나파소

“많은 신자는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신비는 나눌 수 없는 온전한 전체입니다. 그래서 길은 베들레헴에서 골고타로, 구유에서 십자가로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구유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줄기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순교자 성녀 에디트 슈타인이 쓴 글입니다. 부르키나파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성탄 시기에도 이 사실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베르탱 남보호 신부가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납치되거나 살해된 지인들이 한 명쯤 있을 정도이지요. 부르키나파소의 테러범들은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만큼이나 위험한 존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저녁에는 살아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의 동료인 장 피에르 케이타 신부는 이미 납치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은 저를 숲으로 끌고 가 장백의, 영대, 성작, 성무일도와 그 외 다른 성직수행을 위한 도구가 들어있는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저는 제가 사제임을 숨기지 않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테러범들에게 각 물건의 영적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테러범들은 사제관과 성당 등 마을 모든 곳에서 성전의 제대와, 감실 등 전례 도구를 비롯한 것들을 약탈하고 파괴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피신했습니다.

“그들이 병원에 침입해서 제가 세례를 주려던 아기를

- 1 위험을 무릅쓰고 하느님에게 매달리는 사람들
- 2 피난길에 오른 200만 명의 사람들.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ACN!

포함한 환자들의 정맥관을 제거하던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테러범들이 아기의 정맥관을 제거했고, 그 아기는 사망했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목자로서 이런 상황을 겪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은 더 커진다고 와히구야교구의 저스틴 키엔테가 주교가 말합니다. “착용하고 있는 십자가를 내려놓으라는 테러범들의 지시를 거부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요. 주교회의에서 심사를 기다리는 순교자 시복 신청서가 벌써 100건이 넘습니다.”

현재 교회의 시급한 관심사는 심각하게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선의와 격려의 말만으로는 부모의 목이 잘리는 장면을 목격한 어린이들, 테러범들에게 성폭행당한 여성들,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가정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격으로 인해 말을 못 하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CN은 360명의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를 대상으로 6일 과정의 트라우마 상담 교육에 38,090유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시 성녀 에디트 슈타인의 글을 인용해 보자면, “빛은 성금요일의 어둠 속에서 꺼지지만, 부활 아침에는 은총의 태양으로서 더 밝게 떠오릅니다. 십자가와 수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 이것이 사람이 되신 하느님 아들의 여정입니다.” 부르키나파소 신자들의 여정이 골고타에서 끝나지 않도록 함께 도움시다! 🙏

7 1명당 170만 원

부르키나파소
트라우마
치료사 양성
지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성탄의 기쁨!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기억하며 성탄의 기쁨을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세요! :) 다음의 방법으로 ACN 대림 · 성탄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1 기부를 희망하는 선물을 골라주세요.
- 2 선물 번호와 함께 기부금을 아래 후원 계좌로 보내주세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4-459234, 예금주 (사)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 3 QR코드를 스캔한 후, 캠페인 참여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의 순례자들”

12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문을 열면서 ‘희망의 순례자들(Pilgrims of Hope)’을 주제로 한 2025년 희년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725년 전, 교황은 처음으로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교회 전체를 위한 특별한 은총의 선물입니다. 힘든 팬데믹 시기,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폭력 사태와 많은 위기 상황이 이어지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희망과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황은 우리에게 특별히 화해의 성사에 더

자주 참여하도록 권합니다. 또한 모든 신자는 스스로 다른 이들,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희망의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인도의 한 사제가 우리에게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희망의 등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또 전체 교회와 더불어 이 희년이 참된 ‘희망의 순례길’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202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ACN 한국지부 사무실
02-796-6440, 010-7475-6440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부금은 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CN 한국지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회원정보에서 기부자의 ①이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를 확인해주세요. 개인정보 확인 또는 수정이 완료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고통받는 교회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주신 ACN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부장 편지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마르13,24)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환난에 이어 벌어지는 천상의 격변이 마치 우주가 뒤집히는 큰 변화처럼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것임을 표현한 묵시문학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마지막 날인 ‘주님의 날’에 하느님 오심의 중요성을 이 우주적 대변동의 이미지를 통해 사람의 아들의 오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을 것이다.”(마르13,26-27)

다니엘서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즉 사람 존재를 닮은 천상적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다니7,13-14 참조) 이 천상적 인물은 하느님 현존 앞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고,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바로 이 사람의 아들로 말씀하시지요. 따라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환난 뒤에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들이는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미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서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십니다.(마르13,28 참조) 여름과 겨울은 길지만 봄이 짧은 유다 지역에서 무화과나무는 겨울 동안 그 잎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봄에는 수액이 오르면서 그 잎들은 부드러워지고 돋게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 땅에서 무화과나무 잎을 보고 계절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파스카 축제인 봄철에 예루살렘에 와 계셨고, 그때 무화과나무에 잎이 무성하였었지요.(마르11,13 참조) 이렇게 잎만 무성하다는 것은 결국 아직 여름이 오기 전이지만 그리 멀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여름은 추수와 마지막을 상징하는 계절이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마르13,29)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세상 마지막 날인 ‘주님의 날’이 임박한 줄을 알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어 당신의 이름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시고자 당신 자신을 단 한 번의 제물로 바치셨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겠다는 말이지요.(히브10,11-14.18 참조:제2독서) 물론 그날과 그 시간은 모릅니다.(마르13,32 참조) 하지만 그때에 분명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을 것이라고 다니엘 예언자는 말합니다.(다니12,2-3 참조)

무화과나무의 잎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들을 정의로 이끄는 하느님 나라의 현명한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흩어진 백성을 하느님께로 모으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레바논의 여러 지역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국내 피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레바논 전역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특히 이스라엘과 맞닿은 국경 지역은 그 피해가 심각하며, 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테러 공격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공격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인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은 긴급구호를 펼치고 있는 레바논 내 7개 가톨릭 교구, 5개 수도회와 협력하면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여 식료품, 위생용품, 매트리스, 담요, 의약품 및 기타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자 모금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에게 수녀원을 피난처로 제공하고 있는 도움이신 마리아 수녀회 총원장 조셀린 주마 수녀가 폭격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난민 어린이들에게 주는 평온한 위로를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느님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Fr. Kisok John Pak

